

# 크루즈선 몰려오는 광양항 전용시설은 언제 갖추나?



최근 광양항에 입항하고 있는 중국 대형 크루즈선. 내년까지 이들 크루즈선이 36차례 광양항을 찾은 예정이어서 시설 보완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 내년까지 36회 입항·10만명 입국...부유식 터미널 등 첨단시설 시급

대형 크루즈선이 연이어 광양항을 찾고 있는 가운데 관광객을 위한 편의는 물론 부두 보강을 위한 시설 설치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형 크루즈 관광객들이 지역 내에서 머물면서 관광·소비할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 및 시설 보완 등도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광양항 중마부두 시설을 8만 이상이 접안할 수 있도록 비트(선박고정시설) 150t 이상, 선화장 500m 이상이 가능하도록 전용 크루즈항 기반시설을 갖출 방침이다.

현재는 중국 소속 크루즈선이 임시로 광양항에 접안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방문할 수 있도록 화물 위주의 부두시설도 보완해야 하는 실정이다. 울

**현재 임시 접안시설 사용  
승객들 휴게실 등 큰 불편  
관광·소비 효과 못 거둬**

해 광양항을 찾은 중국 관광객들 역시 휴게실, 화장실, 전기시설 등이 부족해 불편을 표했다는 후문이다. 송경중 항만공사 운영팀장은 "항후 중마부두로 크루즈선이 접안할 수 있게 비트 교체 및 승객승하선 다리를 교체해 대형선박의 입출항 개선과 크루즈 전용부두로 승인되도록 노력 중"이라며 "부산항이나 인천항처럼 승객 편의를 위한 최첨단 시설 설치를 위해 정부에 요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광양항에는 오는 29일 중국 언론인, 관광사 대표 11명이 관광객과 함께 방문할 예정에 있는 등 향후 크루즈선 입항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광양항에 입항한 대형크루즈는 올해 6회, 내년 30회 등 모두 36회에 예정돼 있어 중국인 관광객 10만여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부유식 크루즈 전용터미널 등 그에 맞는 조치가 있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광양시도 잇따른 대형크루즈 입항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근 민·관 합동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구룡산 전망대, 정매실농원, 장도박물관, 숲불구이타운 등의 관광을 통해 지역경제로 연결될 시책 개발에 착수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 여수 동시장 81년만에 대대적 정비

2억6000만원 들여 하멜로 일원 철거... 바다 600㎡ 포장

여수 동시장이 81년 만에 대대적인 정비에 들어간다. 시는 20일 "사업비 2억6000만원을 들여 여수시 하멜로 9-14 일원 동시장 내 16동의 장육을 철거하고 바다 600㎡를 새로 포장하는 등 정비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동시장은 지난해 환경정비사업으로 24동의 점포신축사업을 완료했으나 철거하지 않은 노후 장육이 여전히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데다 협소해 이용객들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동시장의 현대화를 도모하고 동시장 일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정비된 공간에는 30면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할 방침이다.

시는 사업추진을 위해 지난 3월 장육 건물 및 이주대상자에 대한 실태 조사와 보상, 철거 용역발주 등의 절차를 마쳤으며 10월부터 철거 등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여수 동시장은 1932년 덕양시장과 같은 시기에 개설된 전통시장으로 구도심 중심지인 관동동에 위치해 과거 크게 번성했으나 근래 구도심 쇠퇴로 상권이 위축됐다. 더군다나 여수경찰서 등 관공서와 금융시설, 학원 등이 밀집해있어 주차난이 심각해 환경개선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대두돼 왔다. 여수시 관계자는 "깨끗하고 청결한 환경조성을 통해 많은 시민이 찾을 수 있도록 쾌적한 시장 환경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수 동시장 골목의 모습. 밀집된 장육들로 이동통로가 매우 협소해 이용객들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관련 여수시는 대표 전통시장인 쌍봉·진남·제일시장 등 4개 시장의 낙후시설 개선을 위해 사업비 19억원을 들여 아케이드(비가림)설치와 소방·

전기시설, 도로포장, 점포간판관리, 편의시설 등을 오는 12월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 곡성농협, 농산물 우수관리시설 지정서 받았다

친환경도정시설로 수매·건조·보관·가공

곡성농협은 20일 "지난해 친환경전문도정시설을 별도로 준공해 수매·건조·보관·가공까지 완전하게 일반벼와 구분하면서 지난 19일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으로부터 농산물 우수관리시설 지정서(GAP)를 받았다"고 밝혔다. 친환경전문도정시설을 별도로 신축한 곳은 전남

지역 농협에서는 곡성농협이 최초다. 곡성농협 친환경전문도정시설에서는 생산된 친환경 쌀을 서울시, 부천시, 광주시 등 학교급식 등에 공급하고 있다. 곡성농협은 또 곡성군의 지원을 받아 군내 친환경경매 단지의 토양검증을 통해 식양토 지역만 별도로 '황후마마 심정쌀'을 특별계약재배하기로 해 457ha 면적에서 조곡 5만 가마(40kg)를 수매해 2013년 산부터 출하할 예정이다. /곡성=김계종기자 kjkim@

## 보성군, 내년 역점사업 추진... 중앙부처에 1536억원 요구

보성군은 내년도 역점 사업 추진을 위해 15개 중점사업, 1536억원을 중앙부처에 요구하기로 했다. 보성군의 주요 국비 건의 사업으로는 해양휴양지 조성사업 등 문화관광분야 4개 사업 994억원과 저탄소 녹색성장 대마 소득자원 개발 등 농림축산

분야 3개 사업 82억원이다. 또 벌교 고택종묘배양장 조성사업 등 수산분야 2건 100억원, 복지분야 22억원, 환경분야 보성강 생태 하천복원사업 338억원 등이다. /보성=김용백기자 kyb@

## 고흥 마치산공원에서 25일 보름달콘서트

고흥군은 오는 25일 백중날을 맞아 고흥읍 마치산 공원에서 국내 정상급 연예인을 초청 보름달 콘서트를 개최한다. 20일 군에 따르면 매일 보름달을 전후해 군민을 위해 찾아가는 공연으로, 이달에는 고흥읍에 소재한 마치산 공원에서 인기 탈린트 최주봉씨의 사회로 배일호, 김해영 등 정상급 가수들이 출연 무더위에 지친 군민들을 위한 위로 공연을 펼친다. 이와 함께 군에서 매주 화요일 무료 영화를 상영하고 오는 28일에는 창곡 '춘향전'을 공연하는 등 다양한 문화예술공연을 개최하고 있다. /고흥=주정숙기자 gjju@

# 서남권 광역화장시설 끝없는 갈등

## 김제시 "예정부지 김제와 가까워 위치 변경해야" 정읍시 등 3개 군 "절차 적법했다... 변경은 불가"

전북 서남권 광역화장시설을 둘러싼 갈등 해소를 위해 전북도가 뒤늦게 1차 조정에 나섰지만 뾰족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전북도는 지난 19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전북도 갈등조정자문위원회와 정

읍시, 김제시, 고창군, 부안군 등 4개 자치단체 부단체장 등을 참석시킨 가운데 '서남권 광역화장시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본격적인 조정에 들어갔다. 화장장 설치 장소를 놓고 이견을

보이는 이들 지역 주민과 해당 자치단체가 끝내 타협점을 찾지 못함에 따라 도 갈등조정자문위원회가 해결사로 나선 것이다. 하지만 이날 조정회의에서도 김제시와 정읍시간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 타협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김제시는 "현재 예정부지는 김제시 경계와 가까워 정서적으로 주민에게 혐오감을 줄수 있다"며 태연변 중

산리 부근으로 변경해 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했다. 반면 정읍시 등 3개 시군은 "예정부지는 4차례의 주민공모를 거쳐 어렵게 선정된 부지인 만큼 행정절차상 하자가 없다면 위치 변경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날도 팽팽한 대립이 계속되자 심병연 자문위원장이 "중립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갈등해소에 적극 노력

하겠지만 해당 시·군도 자문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자문 내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자세를 가져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자문위는 이번 회의를 통해 갈등의 쟁점을 충분히 이해한 만큼 이른 시일내에 현장을 방문,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한편 정읍시, 고창군, 부안군 등 3개 시·군은 지난해 4차례의 공모 끝에 광역화장장 설치 예정부지로 정읍시 감곡면 통서리 일대(약 1만2000㎡)를 정했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 단신

## 부안군, 부정 축산물 유통 집중 점검 나섰다

부안군은 20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30여일 동안 부정 축산물 유통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추월연에 현장을 방문,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한편 정읍시, 고창군, 부안군 등 3개 시·군은 지난해 4차례의 공모 끝에 광역화장장 설치 예정부지로 정읍시 감곡면 통서리 일대(약 1만2000㎡)를 정했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5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 축산물 취급업소 92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에 나선다. 점검내용은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한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영업장 위생상태는 물론 쇠고기이력 관리에 의한 법률에 의한 개체식별번호 표시 등이다. /부안=장재용기자 jiy0681@

## 정읍 단품미인쇼핑몰, 10%~50% 할인판매

정읍 단품미인쇼핑몰은 20일 "이달부터 9월13일까지 21개 업체 150여개 상품을 최대 10% ~ 50% 할인판매하고 10+1 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 추석 선물 구매고객을 대상으로 최고 구매고객 10명을 선정, 10만원 상당의 농산물을 증정하고 신규 회원 가입 후 구매한 고객 20명도 선정하여 5

만원 상당의 농산물을 증정한다. 이와 함께 경품추첨(20명)을 통해 5만원 상당 농산물을 지급할 예정이다. 추석 명절 선물 구입은 단품미인쇼핑몰(http://danpoongmall.com) 방문 또는 고객센터(080-535-4345)로 전화 주문하면 된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 전주보건소, 한옥마을 태조로·은행로 금연 단속

전주보건소는 전주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제정에 따라 9월1일부터 시행되는 전주 한옥마을 태조로·은행로에서 흡연하다가 적발되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소는 단속을 위해 단속요원을 채용했으며,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한옥마을 이용

자와 시민들에게 금연 정책을 홍보할 방침이다. 김경숙 전주보건소장은 "공공장소 금연은 서로의 건강을 위한 배려"라며 "공공장소 금연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전주·군산=박기섭기자 parkks@

## (주)세움, 자동차 부품라인 증설 250억원 투자

전북 정읍 제2산업단지에 있는 (주)세움이 자동차 부품라인 증설을 위해 250억원을 투자한다. 전북도와 정읍시, 세움은 19일 정읍시청에서 2산단내 2만500㎡에 상용차용 머플러 설비 등을 증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고창=윤정영기자 cy0370@

세움은 2015년까지 증축공사를 끝내고 30여명을 신규채용하기로 했다. 세움은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의 주간 2교대 노사협의 타결에 따른 물량증가에 대비, 증설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 전주 학부모 72% "교육비 부담스럽다"

### 市, 1000가구 대상 조사

전주지역 학부모 10명 중 7명꼴은 자녀의 교육비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시가 지난해 시민 1000가구를 대상으로 한 사회조사결과 학부모의 71.5%가 소득에 비해 교육비가 부담스럽다고 대답했다. 부담스럽지 않다는 응답은 11.4%에 불과했다. 부담은 보충교육비(56%)와 학교납입금(36%)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교재비(3.1%)와 하숙·자취·기숙사비(3.1%)도 허리를 휘게 한 요인이

었다. 또 응답자 중 20% 가량이 흡연자였으며 남자는 40%, 여자는 1%가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연령별로는 30대의 흡연자가 가장 많았다. 일부는 가족들이 원하거나 건강을 생각해서 금연을 시도했으나 스트레스(47.6%), 의지 부족(33%), 금단현상(16.5%) 때문에 결국 담배를 손에서 놓지 못했다고 답했다. 지난 1년 동안 자살 충동을 느낀 응답자는 6.8%였고 이 가운데 0.9%가 실제 시도한 적이 있다고 고백했다. /전주·군산=박기섭기자 parkks@

## 남원~전주간 직통 시외버스 요금 1400원 인하

전북 남원~전주간 직통 시외버스 요금이 20일부터 편도 기준 1400원이 인하됐다. 요금인하는 지난달 10일 전북도와 전북버스운송조합의 인하 방침에 따라 요금변경에 따른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 2학기 개강시기에 맞춰 시행하게 됐다. 이번 결정으로 요금은 종전 6900원에서 5500원으로 내렸다.

그동안 남원시민은 남원~전주 간 교통여건이 개선되었는데도 거리가 가까운 남원~광주 간보다 요금이 비싸다며 요금인하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전주~남원 간 시외버스 직통은 현재 편도 64회, 업체별로 전북고속 28회, 호남고속이 36회 운행하고 있다. /남원=백선기자 bs8787@

# 전북

## 서남권 광역화장시설 끝없는 갈등

보이는 이들 지역 주민과 해당 자치단체가 끝내 타협점을 찾지 못함에 따라 도 갈등조정자문위원회가 해결사로 나선 것이다. 하지만 이날 조정회의에서도 김제시와 정읍시간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 타협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김제시는 "현재 예정부지는 김제시 경계와 가까워 정서적으로 주민에게 혐오감을 줄수 있다"며 태연변 중



## 고창군, 붕어 74만 마리 방류

2004년부터 하천 및 저수지에 내수면 어종인 뱀장어, 참개, 붕어, 동지개 등을 방류하고 있다. /고창=윤정영기자 cy0370@

고창군은 점차 사라져 가는 토산어종 보호 및 생태계 복원을 위해 20일 고창읍 외정재 등 지역내 32곳에 붕어 74만 마리를 방류했다. 군은 지난